

#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결정 연구 개요

## 표어

여호와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며 그분을 대표하도록, 이기는 이인 신언자 예레미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한 책인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가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시어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임을 계시한다.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의 상태로 계시며, 어떤 종류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통치의 보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보좌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의 인간적인 느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보좌를 만졌으며 하나님의 신성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 자신을 담는 그분의 그릇들로, 그분의 용기들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분의 그릇, 그분의 토기 용기로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단체적인 그릇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의 사역을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심으로써  
목양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이 상호 목양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서로 목양하면서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 떼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다윗의 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과 의롭다 함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의 결과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법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며,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으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메시지 1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신언자인 예레미야

성경: 렘 1:1, 4-8, 10, 18-19, 4:19, 9:1, 10, 13:17

- I.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신언자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제사장-신언자였다 — 렘 1:1, 4-8.
  
- II.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우신 것은 그 민족들과 왕국들을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허물며, 건축하고 심으시기 위해서였다 — 렘 1:10.
  - A.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무시는 것인 데 반해, 건축하고 심는 것은 여호와께서 높이시는 것이다.
  - B. 이것은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두 가지 의미인 ‘여호와께서 높이신다’와 ‘여호와께서 허무신다’와 일치한다.
  
- III. 여호와는 예레미야를 요새화된 성과 쇠기둥과 늦 성벽으로 만들어,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과 맞서게 하셨다. 그들이 예레미야와 맞서 싸우겠지만 여호와는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 렘 1:18-19.
  - A. 땅 위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거슬러 싸우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있어 왔다 — 엡 6:12.
  - B.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 싸우신다 — 딤후 1:18, 6:12, 딤후 4:7.
  - C. 하나님은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시기 위해 그분의 군대, 곧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을 보내셨다.
    - 1. 예레미야는 요새화된 성과 쇠기둥과 늦 성벽이 되는 그러한 정도까지 하나님에 의해 장비되었다 — 렘 1:18.
    - 2. 여호와와의 일인(一人) 군대인 예레미야에게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호와께 대항해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 렘 1:19상.
    - 3.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누구도 그를 패배시킬 수 없었다 — 렘 1:19하.
  
- IV.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이기는 이였다 — 렘 1:9-10, 2:1-2.
  - A. 예표의 시대에서 이기는 이들은 신언자들이었다. 모든 참된 신언자들은 이기는 이들 이었다.

메시지 1 (계속)

- B. 하나님의 백성의 대다수가 황폐해져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기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 C. 왕인 다윗과 신언자인 나단에게서 볼 수 있듯이, 신언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돌보았고, 신탁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했다 — 삼하 7:1-17, 12:1-15.
- D.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신언자들이라는 예표의 성취이다.
- E. 이기는 이로서 예레미야는 반대 증거였다.
  - 1. 이스라엘 자손은 황폐하게 되었고, 예레미야는 반대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 렘 27:1-15.
  - 2.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하여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바빌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도록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 렘 15:12-14.
  - 3.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기는 이인 예레미야는 반대 증거로서 거짓 신언자들과는 상반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 렘 27:16-28:17.

**V.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의가 합쳐져 있다는 점이 예레미야서의 특별한 특징이며 예레미야서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한다 — 렘 9:10-11, 23:5-6, 33:16.**

- A.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이 가득하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 렘 9:10-11, 23:6.
- B.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부드러운 돌봄과 자비와 동정의 복합체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실 때에도 그들을 향하여 자비로우셨다 — 애 3:22-23.
- C. 예레미야서 9장 10절과 11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잡으심으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여호와의 느낌을 보여 준다.
  - 1. 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동정이 가득하셨다.
  - 2. 예레미야서 9장 18절에서 ‘우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을 고난당하는 백성과 연결하셨으며, 그들의 고난 안에서 그들과 하나이셨음을 가리킨다.
  - 3. 여호와 그분 자신께서 그분의 백성을 동정하심으로 울고 계셨다.

**VI. 예레미야서는 또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의 상황과 인격과 느낌에 대해 말해 주는 자서전으로서, 그의 부드러운 마음을 드러내 준다.**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1 (계속)

- A. 하나님은 부드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소심한 청년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졌다 — 램 3:6-11, 4:3-31, 32:26-27, 33:1-2.
- B. 여호와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며 그분을 대표하도록 신언자 예레미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 — 램 2:1-3:5, 4:19, 9:1, 10.
- C. 여호와와 그분께 위선적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으며,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바로잡으시는 일에 반응하였다. 신언자의 반응은 매우 부드럽고 동정이 가득하며 자비로웠다 — 램 8:18-19, 21-22, 9:1-2, 10:19-25.
- D.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울었으며, 그의 울음은 하나님께서 우시는 것을 표현하였다 — 램 4:19, 9:1, 13:17.
  - 1. 예레미야는 그의 울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였다 — 램 9:10.
  - 2. 우리는 예레미야의 울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울었기 때문이다 — 램 13:17.
- E. 예레미야는 자주 울었고, 심지어 통곡하였기에 눈물의 신언자라고 불린다 — 애 1:16, 2:11, 3:48.
  - 1. 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이러한 느낌들을 가진 누군가를 찾으셔야 했다.
  - 2. 그분의 영께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 예레미야 위에 임하셔서 예레미야의 영 안에 그분의 느낌들을 넣어 주시자 곧 그 신언자는 하나님의 슬픈 느낌을 표현할 수 있었다.
  - 3.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비록 그가 울었지만 그의 감정이 훈련받아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램 4:19, 9:1, 10, 13:17.
  - 4. 예레미야의 슬프고 울고 싶은 감정이 훈련받고 제한받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슬픈 느낌들을 표현하도록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

## VII.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정들을 가져야 하고,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 약 5:11, 출 34:6, 시 103:8.

- A. 영적인 사람은 감정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영적일수록 우리의 감정들이 더 풍성해진다 — 고전 4:21, 고후 6:11, 7:3, 10:1, 12:15.
  - 1. 우리에게는 우리의 감정들이 섬세하고 부드럽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메시지 1 (계속)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며 우리를 다루실 때마다, 우리의 느낌들은 더욱 섬세하고 예민하게 된다. 이것은 걸사람이 파쇄되는 것과 관련된 가장 깊은 공과이다 — 고후 4:16.
- B.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 엡 4:32.
1. 우리는 우리의 동료 믿는 이들을 판단하거나 유죄판결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같이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 눅 6:37, 엡 4:32.
  2.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부드럽게 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것이다.
- C.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으며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다 — 행 20:19, 31, 빌 3:18.
1. 우리가 울거나 눈물을 흘릴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다지 영적인 것이 아니다.
  2. 우리가 영 안에 살면서 혼을 기관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할 수 있을 것이다 — 행 20:19, 31.
- D. ‘많은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리며’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 고후 2:4.
1. 바울의 표현은 부드러웠고,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친근한 관심으로 가득했다 — 고후 11:28, 12:15.
  2.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 대해 깊고 부드러우며 친근한 관심을 전했다. 그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 고후 7:2-3.
  3. 바울의 표현은 부드럽고 친근한 관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능력과 영향력이 있었으며, 믿는 이들을 깊이 만질 수 있었다.
- E.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바카(눈물 흘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이 골짜기를 샘이 되게 하신다. 이 샘은 그 영이다 — 시 84:6, 요 4:14, 7:38-39.
1. 우리가 시온을 향한 대로에서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시 84:5), 그 영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동안, 우리는 그 영으로 채워지며, 그 영은 우리의 샘이 되신다.
  2. 우리가 흘린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지만, 이 눈물은 샘이 되고, 이 샘은 이른 비 곧 복이신 그 영이 된다 — 슥 10:1, 갈 3:14, 엡 1:3.